제12강, 노장의 논리와 예술의 길
– □기운생동□(氣韻生動)하는 힘의 예술을 찾아서

(1교시)

* 『장자』: 철학적이라기보다 문학적. 예술분야에서 각광을 받았다.

1. 미학에서 왜 □노장□인가?

(1) 서구의 미학은 감성학(Aesthetics)이요, 미에 대해 탐구하는 근대적 과학 → 예술학의 부상

(2) 마르크스주의(객관주의)의 도래와 틈새의 사유 → **□마음□(心)의 구제**는 □미학□으로부터 (전통 중국철학의 알맹이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)
*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이 마음에 있다. (내면화의 중요성)

(3) □먹을 것을 찾는 몸□에서 □생각하는 마음□으로의 전환 → 유심론/전통의 복권

(4) 감성의 세계를 찾아서, **기(氣)**의 본래 의미의 복원: 물질(氣)에서 정신(精神)으로
* 정(精)-기(氣)-신(神) ⇒ 생명의 기운
* 호연지기(浩然之氣)

(2교시)

예) **『맹자』(孟子) 「고자상」(告子上) 11:8**

맹자가 말씀하셨다. □한 때 우산(牛山)에는 나무가 울창하여 보기에 좋았다. 그런데 이 산이 큰 나라의 교외에 있었던 까닭에 도끼와 자귀에 계속하여 베어지게 되었다. 이를 두고 보기에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? 밤과 낮에 가끔씩 쉬는 때가 있고 또 비와 이슬이 촉촉이 적셔주기에 새싹과 가지가 돋아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건만, 이에 따라 다시 소떼와 양떼가 그 산에서 방목되었다.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것이다. 사람들은 이 산이 민둥산이 된 것을 보고서는 거기에 전혀 나무(材)가 없었다고 여기게 되어버렸다.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(性)이겠는가?

비록 사람에게 있는 것 가운데 인의(仁義)의 마음이 어찌 전혀 없겠는가. 다만 사람이 제 참된 마음(良心)을 놓아버림이 마치 나무와 도끼와 자귀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. 날마다 나무가 베어지니 어찌 이를 두고 보기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. 낮과 밤에 쉬고 상쾌한 아침의 기운(平旦之氣,

the effect of the morning air)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가까운 자가 아주 드물다면, 그것은 그가 하루 중에 하는 것이 다시 그 얻은 바를 흩어버리기 때문이다. 이렇게 흩어버리는 일이 반복이 되면 밤 바람의 시원한 기운(夜氣, the influence of the air in the night)이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하게 된다. 밤 바람의 시원한 기운이 더 이상 보존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를 바가 거의 없게 된다. 다른 사람들이 그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고서 그에게 아예 타고난 것(才)이 없었다고 하게 될 것이다.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참 모습「人之情」일 수 있겠는가?□

(孟子曰, □牛山之木嘗美矣, 以其郊於大國也, 斧斤伐之, 可以爲美乎? 是其日夜之所息, 雨雲之所潤, 非無萌蘖之生焉, 牛羊又從而牧之, 是以若彼濯濯也. 人見其濯濯也, 以爲未嘗有材焉, 此豈山之性也哉? 雖存乎人者, 豈無仁義之心哉? 其所以放其良心者, 亦猶斧斤之於木也, 旦旦而伐之, 可以爲美乎? 其日夜之所息, 平旦之氣,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, 則其旦晝之所爲, 有梏亡之矣. 梏之反覆, 則其夜氣不足以存, 夜氣不足以存, 則其違禽獸不遠矣. 人見其禽獸也, 而以爲未嘗有才焉者, 是豈人之情也哉? 故苟得其養, 無物不長, 苟失其養, 無物不消. 孔子曰, □操則存, 舍則亡, 出入無時, 莫知其鄕.□ 惟心之謂與?□)

* 기(氣): 모두 사람의 몸을 통해 느껴지는 모양새를 말함. 독자적이지 않고 관계적인 개념이다. (平旦之氣(평단지기)를 찾음으로서 반성하는 자세. 정신이 깨어남.)

(5) □서구화□가 아닌 □근대화□ → 감성/자유/화해의 세계를 찾아서

2. 노장과 예술 철학적 사유

(1) 『논어』(論語)와 『노자』(老子)의 두 가지 이상

『논어』 「술이」(述而) 6: □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되 예에 머물 것이라.□(子曰, □志於道, 據於德, 依於仁, 遊於藝.□)

『노자』 37장: □도는 늘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한 것이 없다.□(道常無爲而無不爲)

(2) 한 가지 사례: 석도(石濤)의 화론(畵論)

아주 오랜 옛날에는 법이 없었다. 거대한 통나무는 본래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. 하지만 일단 거대한 통나무가 흩어지게 되면서 법이 세워지게 된다. 그렇다면 법이란 어디에서 세워지는 것인가? 한 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. 한 획이란 모든 있는 것들의 근본이요 온갖 모양의 뿌리로서 예술가

의 신묘한 작용에서는 드러나지만 보통 사람의 작용에서는 숨어버리기에 세상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한다. 이 때문에 한 획를 긋는 묘법이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다. 한 획의 묘법을 세운 자라야말로 무법으로 유법을 낳고 이 유법으로 모든 법을 관통하는 것이다.
太古無法, 太朴不散, 太朴一散, 而法立矣[1]. 法於何立? 立於一劃.[2] 一劃者, 衆有之本, 萬象之根, 見用於神, 藏用於人, 而世人不知. 所以一劃之法, 乃自我立. 立一劃之法者, 蓋以無法生有法, 以有法貫衆法也.[4] (『苦瓜和尙畵語錄』)

(3) 『노자』에서의 차용한 맥락들의 예시:

[1] 『노자』 28장: □통나무가 흩어지니 그릇이 된다. 성인이 이것을 쓰면 관장이 되니 따라서 그의 위대한 창조가 베어지지 않는다.□(樸散則爲器. 聖人用之, 則爲官長, 故大制不割.)
[2] 『노자』 42장: □도가 하나를 낳고, 하나는 둘을 낳고, 둘은 셋을 낳고, 셋은 만물을 낳는다.□(道生一, 一生二, 二生三, 三生萬物.)
[3][4] 『노자』 1장: □이름없음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요, 이름있음은 온갖 것들의 어미이다. 따라서 욕심을 없앰으로써 그 오묘함을 보고 욕심을 가짐으로써 그 가생이를 본다. 이 두 가지는 함께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한 것이니 함께 일컬어 신비하다고 한다. 신비하고 또 신비하니 뭇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로다.□(無名天地之始, 有名萬物之母. 故常無欲以觀其妙, 常有欲以觀其?. 此兩者同出, 而異名, 同謂之玄. 玄之又玄, 衆妙之門.) □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부드러움이 도의 쓰임이다.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유에서 나왔고, 유는 무에서 나왔다.□(反者, 道之動, 弱者, 道之用, 天下萬物生於有, 有生於無.)

(4) 기(氣)의 예술철학의 예: **사혁(謝赫) 『고화품록』(古畵品錄)의 육법(六法)**

① 기운생동(氣韻生動): 사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이 생동하는 기운을 드러내는 것
Creative Spirit-Resonance

② 골법용필(骨法用筆): 힘이 넘치듯이 붓을 놀리는 기술의 흔적
Disciplined Brushwork

③ 응물상형(應物象形): 사물의 고유한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
Proper Representation of Obejects

④ 수류부채(隨類賦彩): 사물의 유형에 맞게 적절한 색채를 주는 것
Specific Coloration of Those Obejects

⑤ 경영위치(經營位置): 구도와 배치를 설정하는 것

Good Composition

⑥ 전이모사(傳移模寫): 선대의 명화를 모사하여 기법을 익히는 것

Study of Copying of Old Masters

(5) 삶을 표현하는 예술에서 예술의 삶으로의 승화 : 예(藝)에도 도(道)로